

보도 일시	2023. 1. 10.(화) 09:00	배포 일시	2023. 1. 10.(화) 09:00
담당 부서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팀	책임자	팀장 이동혁 (044-203-2791)
		담당자	사무관 신호심 (044-203-3147)

“2023년은 씨름 부활의 원년,

제2의 이만기, 강호동이 나오게 하겠다”

- 씨름이 재미있어진다! 예능 속 ‘씨름의 희열’이 실제 대회에서 느껴지도록 경기방식, 경기장 혁신!
- 씨름대회 지원의 중복과 낭비 요소 없애고, 대한씨름협회 운영도 개혁
- 문체부, 씨름을 국민과 함께하는 K-스포츠 대표 브랜드로 육성
- 이만기, “K-씨름 부활 위해 힘 보태겠다”

- (전통의 발굴과 현대적 재현) ▲ 씨름콘텐츠 제작·보급, ▲ 씨름 전통 의례 복원 및 재현, ▲ 전통 씨름 체험 확산
- (대회 혁신으로 매력 창출) ▲ 명절 및 천하장사대회, 4대 메이저 대회로 육성, ▲ ‘소백’급 신설, 경기 규칙 개편, ▲ 세미프로리그 출범
- (국민 모두가 즐기는 씨름) ▲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 씨름시범단 창단 및 해외 파견
- (대한씨름협회 혁신) ▲ 각급 연맹 창설, ▲ ‘씨름혁신 전담팀’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월 10일(화), 민족 고유의 전통 스포츠인 씨름이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브랜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K(케이)-씨름 진흥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진흥방안은 선수 출신 씨름인과 대한씨름협회 관계자, 학계·미디어·스포츠마케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K(케이)-씨름진흥 민관합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만들었다.

씨름은 그동안 대형스타 부재와 기술씨름 쇠퇴로 침체기를 겪어 왔으며, 스포츠로서의 경쟁력 상실로 젊은 세대와 미디어의 외면을 받아 왔다. 이에 문체부는 이번 진흥방안을 통해 씨름을 전통과 품격, 매력을 갖춘 국민 스포츠로서 K(케이)-스포츠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씨름을 ‘이름뿐인 전통 스포츠에서 전통과 품격을 갖춘 스포츠’로, ‘어르신들만 보는 스포츠에서 MZ세대 팬덤이 있는 스포츠’로, ‘보조금에 의존하는 스포츠에서 자생력을 갖춘 스포츠’로, ‘미디어의 관심과 조명을 받는 스포츠’로 재탄생을 지원한다.

2023년은 씨름 부활의 원년, 씨름의 모든 것을 혁신

박보균 장관은 “2023년을 K(케이)-씨름 부활의 원년으로 삼아 전성기 씨름의 환호와 갈채, 추억을 되살리겠다. 씨름대회, 경기방식,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의 모든 것을 혁신해 제2의 이만기, 강호동이 나오게 할 것”이라며, “씨름에 대한 정부 지원에서 중복과 낭비의 요소를 없애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씨름진흥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기 위원, “정부의 관심으로 좋은 계기 마련, 씨름인으로서 힘 보탠다”

이번 진흥방안 수립 논의에 ‘K(케이)-씨름 진흥 민·관합동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여한 이만기 인제대 교수는 “1980년대에 우리 씨름은 최고의 부흥기를 누렸으나 현재는 변화하는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 관심으로 진흥방안이 수립되고 기업팀도 창단하는 등 좋은 계기가 마련된 만큼 씨름 전성기였던 80년대 이상으로 씨름이 국민스포츠로서 재도약했으면 좋겠다.”라며,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씨름 활성화에 대한 씨름인들의 열망과 노력이 중요하며, 저도 씨름인의 한 사람으로서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K(케이)-씨름 진흥방안’은 ‘K(케이)-씨름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비전 아래 ‘전통의 발굴과 현대적 재현’, ‘대회 혁신으로 매력 창출’, ‘국민 모두가 즐기는 씨름’의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전통의 발굴과 현대적 재현으로 씨름의 품격 제고

먼저, 씨름의 전통적 요소를 발굴해 현대적으로 되살리고 전통 의례로서의 씨름을 재현해, 외면받는 비인기 스포츠가 아닌 고유의 전통스포츠로서의 품격을 높인다.

<비전> “K-씨름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 씨름을 전통과 품격, 매력을 갖춘 국민스포츠로서 K-스포츠 대표브랜드로 재탄생 -

현재(AS-IS)	미래(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뿐인 전통 스포츠 ▪ 지루하고 결과가 뻔한 경기 ▪ 어르신들만 보는 스포츠 ▪ 보조금에 의존하는 스포츠 ▪ 미디어가 외면하는 그들만의 스포츠 ▪ 대회(전문체육) 중심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과 품격을 갖춘 스포츠 ▪ 흥미진진하고 예측 불가능한 경기 ▪ MZ세대 팬덤이 있는 스포츠 ▪ 자생력을 갖춘 스포츠 ▪ 미디어의 관심과 조명을 받는 스포츠 ▪ 향유 기회 확대(생활체육)와 균형

3대 추진과제

- ① 전통의 발굴과 현대적 재현
- ② 대회 혁신으로 매력 창출
- ③ 국민 모두가 즐기는 씨름

전통씨름에서 ‘오른씨름’, ‘띠씨름’, ‘빠씨름’, ‘판막음’ 등 긴장감과 흥미를 줄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해 씨름콘텐츠로 제작하고, 이를 미디어와 씨름대회 등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사료의 고증을 통해 경복궁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씨름을 품격 있는 의례·공연으로 재현하고, 국립민속 박물관에서는 절기마다 열고 있는 세시풍속 행사에서 씨름 체험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회 혁신으로 씨름의 매력과 재미 부활

차별성이 없는 유사한 대회가 난립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루하고 뻔한 경기가 아닌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경기가 되도록 경기방식, 관람 콘텐츠, 경기장 등 씨름대회의 모든 것을 혁신한다. 시·군 단위 체육관에서 주로 열려 미디어 주목도와 접근성이 떨어졌던 설날, 추석, 단오, 천하장사 4개 대회의 서울 및 대도시 개최를 추진해 ‘미디어가 주목하고 MZ세대도 즐기는 메이저 대회’로 집중 육성한다.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몰입감 있는 경기장, K(케이)-컬처와 결합한 관람 콘텐츠로 품격있고 생동감 있는 대표 대회(플래그십)도 만들어나간다. 또한 4개 씨름대회와 씨름을 활용한 예능, 숏폼(짧은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연중 순환 노출해 씨름 부흥의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 운영에서는 현 4개 체급 중 가장 경량급인 ‘태백’급보다 낮은 체급인 ‘소백’급을 신설해 경량화를 통한 기술씨름 부활을 견인하고, 기존 토너먼트 외 다양한 대진 방식 도입, 경기 규칙 개편으로 경기 자체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아울러 현재의 민속씨름 실업리그에 기업팀, 지역 연고, 리그제, 상품화 등 프로스포츠 요소를 도입해 프로리그로 전환하기 위한 직전 단계로 운영하고, 자생력을 갖춘 대회로 육성한다. 올해 실업팀과 프로팀이 혼합된 세미프로리그가 출범하며, 1월 10일(화), 새마을금고 프로씨름단 창단을 기점으로 2025년까지 프로팀 5개 창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 모두에게 씨름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중장년층, 남성 위주의 스포츠에서 탈피해 자랑스러운 전통스포츠로서 유소년, 여성, MZ세대, 외국인까지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놀이형 씨름 체험프로그램과 초등학교 씨름 교과를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씨름 영상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를 통해 MZ세대 대상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확산한다. 씨름 스타의 SNS 마케팅도 강화하고 씨름 소재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찾아가는 씨름 교실 운영, 지역 사회와 씨름단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씨름 전문시범단의 창단 및 파견, 유사 종목 보유 국가들과의 국제교류를 통한 씨름의 세계화도 뒷받침한다.

대한씨름협회의 지속적 혁신 추진

대한씨름협회에 실업연맹, 대학연맹 등 각급 연맹을 창설해 협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과부하도 개선한다.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씨름혁신 전담팀’도 설치해 대회 개편, 프로리그 출범 등 핵심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따로 붙임 ‘K(케이)-씨름 진흥방안’